

스스로 조직하고 부수기

참여: 조은비, 김영글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5:00-16:30

미술을 한다는 것은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을 단순히 이어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과 사물, 말과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조직하며 때로는 그것을 부수는 일이기도 하다. 큐레이터 조은비와 미술가 김영글은 각자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공통의 삶의 조건을 뒤집어 보고 다시 세우는 하나의 계기로서 미술에 접근해 왔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기획전 〈아직 모르는 집〉(2013)과 〈복행술〉(2016)을 기점 삼아,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다.

조은비는 KT&G 상상마당 갤러리, 아트스페이스 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잉여, 거주, 젠더, 공동체 등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한 고민을 토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조건에 대한 모색을 미술의 언어로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 〈아직 모르는 집〉(아트스페이스 풀, 2013), 〈여기라는 신호〉(갤러리 팩토리, 2015), 〈복행술〉(케이크 갤러리, 2016), 〈모빌〉(두산 갤러리, 2017) 등을 기획했고, 공동 번역서 『스스로 조직하기』 (미디어버스, 2016)를 출간했다.

김영글은 익숙한 사물과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글쓰기가 갖는 미술적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Six Fingers〉(2012)를 열었으며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세실극장, 2018), 〈가족보고서〉(경기도미술관, 2017), 〈여덟 작업, 작가 소장〉(시청각, 2017), 〈복행술〉(케이크 갤러리, 2016), 〈청춘과 잉여〉(커먼센터, 2014), 〈러닝머신〉(백남준아트센터, 2013), 〈아직 모르는 집〉(아트스페이스 풀, 2013), 〈다시-쓰기〉(두산갤러리, 2013)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토크 프로그램 〈정령, 도적, 방울〉 첫째날

파트타임스위트의 현재 작업

참여: 이미연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7:00-18:00

현재라는 시간은 어떻게 접근될 수 있을까. 현재와 과거의 기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경계, 나의 시간과 당신의 시간의 교차점은 단호하게 고정되지 않는다. 파트타임스위트는 스스로 콜렉티브의 형태를 가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현할 수 있는 구성체 또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작업 속에 지속시켜왔다. 이미연은 파트타임스위트의 일원으로서 그간의 활동을 현재라는 비결정적인 다중 시점에서 다시 보고 이야기한다.

이미연은 공통적으로 처해 있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기반으로 2009년 이병재, 박재영과 파트타임스위트를 결성했다. 2013년부터 박재영과 듀오로 활동하면서, 그간의 질문들을 오늘날 일상의 근간을 압도하는 전-경제주의와 미디어 환경, 그 속에서 미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힘에 대한 탐구로 연장하고 있다.

파트타임스위트는 2009년 세 차례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목적근거지> (2010-2011), <Drop By Then> (2010-2011), <XXX> (2016) 등의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2011> (아뜰리에 에르메스, 2011), <What should I do to live in your life?> (샤르자예술재단, 2012), <City Within The City> (거트루드 컨템포러리, 멜버른, 2012), <막후극> (인사미술공간, 2015), <안무사회> (백남준아트센터, 2015), <Gravity Zero> (엘 란치토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전시, 마드리드, 2015) 외 다수 기획전에 참가했다. 최근 개인전 <부동산의 발라드> (ARTZONE, 교토, 2017)를 가졌다.

토크 프로그램 <정령, 도적, 방울> 첫째날

멀티 액션

참여: 윤지원, 윤향로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14:00-15:30

미술가들이 스스로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가 있다. 미술가 윤향로는 다른 미술가들과 함께 기획전 〈알아서 조심〉(2013)과 〈굿-즈〉(2015)를 구성하고 자신의 작업을 직접 선보였다. 미술가 윤지원은 〈돌과 땅〉(2012)과 〈여덟 작업, 작가 소장〉(2017)에서 전시 기획 자체를 일종의 개인 작업으로서 수행했다. 미술가로 살아가면서 취하게 되는 여러 개의 역할과 위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윤지원은 주로 전시 공간에 위치하는 작업을 만든다. 이따금 전시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글을 쓴다. 슈가숏트페퍼 프로덕션을 공동 운영하며 전시 공간과 관련이 없는 각종 영상을 만들기도 한다. 〈나, 박정희, 벙커〉(서울시립미술관 여의도분관, 2017),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국립현대미술관, 2016), 〈SeMA 전시 아카이브: 1988-2016: 읽기, 쓰기, 말하기〉(서울시립미술관, 2016), 〈2015 랜덤엑세스〉(백남준아트센터, 2015) 등의 전시에 참여했고 최근 기획한 전시로는 〈여덟 작업, 작가 소장〉(시청각, 2017)이 있다.

윤향로는 동시대 이미징 기술의 조건과 연합하는 추상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Surflatpictor〉(P21 갤러리, 2018), 〈Liquid Rescale〉(두산갤러리 뉴욕, 2017), 〈Screenshot〉(원앤제이플러스원, 2017), 〈Blasted (Land)scape〉(인사미술공간, 2014), 〈Short Cuts〉(갤러리175, 2012)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광주비엔날레〉(2018), 〈IN_D_EX: 인덱스〉(서울시립미술관, 2018), 〈Reality Check〉(소더비 인스티튜트 뉴욕, 2017),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아뜰리에 에르메스, 2017), 〈평면탐구: 유닛, 레이어, 노스탤지어〉(일민미술관, 2015), 〈젊은 모색 2014〉(국립현대미술관, 2014)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토크 프로그램 〈정령, 도적, 방울〉 둘째날

탄력적인 놀이

참여: 심혜린, 김윤익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16:00-17:30

미술가들이 스스로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작업을 전시하고 유통시키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작업을 생산하고 재검토하는 공간이 되거나 일시적인 프로젝트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김윤익과 심혜린은 2009년 미술가들의 공동 작업실로 시작된 '공간 사일삼'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사용하는 미술가다. 작가운영공간의 가능한 형태를 조각하고 활용해온 각자의 경험과 판단을 나눈다.

심혜린은 개인과 사회, 신체와 인공 환경, 우발적 사건과 끈질긴 반복 사이에서 유통하는 자신의 감각 체계를 추상회화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개인전으로 <춤추고 반짝이는 연대>(갤러리 조선, 2017), <A New Field Touch>(지금여기, 2016), <불가능한 차원의 가능성에 대한 변주>(공간 사일삼, 2013), 최근 단체전으로 <아시아 쿨라 쿨라-링>(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6), <오늘의 살롱 2015>(커먼센터, 2015), <싱글러브유-오이맛사지>(테이크아웃드로잉, 2015) 등이 있다. 공간 사일삼의 공동 운영자 김윤익과 함께 미술-디자인 콜렉티브 리사익으로 <숨고 달리다가 영원히>(아카이브봄, 2014), <오분 먼저 가려다 오십년 먼저 간다>(테이크아웃드로잉, 2015)의 개인전을 가졌다.

김윤익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스스로 처한 상황을 말과 이미지, 평면과 입체, 전시 또는 공간의 형태로 변형한다. 개인전으로 <포유류 대장간>(공간 사일삼, 2018), <세계의 바깥>(공간 사일삼, 2014)이 있으며, <아시아 쿨라 쿨라-링>의 공간 사일삼 전시 <저-장소>(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6), <싱글러브유-오이맛사지>(테이크아웃드로잉, 2015) 등을 기획했다. 2009년 공간 사일삼을 공동 설립했으며, 심혜린과 함께 미술-디자인 콜렉티브 리사익으로 <숨고 달리다가 영원히>(아카이브봄, 2014), <오분 먼저 가려다 오십년 먼저 간다>(테이크아웃드로잉, 2015)의 개인전을 가졌다.

토크 프로그램 <정령, 도적, 방울> 둘째날

‘나’와 ‘나’의 관계

참여: 강지윤, 김미정, 봄로야, 임나래

일시: 2018년 10월 27일(토) 15:00-17:00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이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나’의 변화나 침범을 경험하기도 한다. 미술을 만들고 스스로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미술가 강지윤과 봄로야, 큐레이터 김미정과 임나래는 미술 생산자로서 다양한 역할과 관계를 경험하고 스스로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시도해 왔다. 각자의 경험과 소망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의 모양을 가늠해 본다.

강지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속에서 애써 유지해야 하는 불완전한 신체적 감각들을 책과 문장, 몸짓과 설치물의 형태로 탐구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콜렉티브 KHH의 일원으로 <낭만의 순간>(플레이스막, 2012), <산으로 가는 배>(스페이스99, 2012), <적당한 사이>(스페이스99, 2013), <제 몫>(오픈스페이스배, 2015)의 이인전을 가졌다. 개인전으로 <아무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베타공간 반지하, 2017)이 있고, 최근 단체전으로 <현재전시: Speaking Text>(스페이스xx, 2018), <1, 2, 3, 4, 5, 6>(갤러리175) 등이 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이자 사유지의 멤버로서 임나래와 함께 <현재전시>를 만든다.

김미정은 동시대 미술에서 발발하는 움직임들에 관심을 두고 기록을 시도한다. 아르코 신진기획자 인턴십 성과보고전 <미쓰-플레이>(인사미술공간, 2014)를 공동기획했고 아트 스페이스 풀에서 <오늘, 아무도 없었다>(2018), <빙고>(2017), <공감오류: 기꺼운 만남>(2016) 등을 기획했다. 2017년부터 미술가 김우진, 전보경과 함께 Z-A로 활동하며 미술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 의문을 현시대의 생존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해 이와 연관된 출판, 전시,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현재 아트 스페이스 풀의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토크 프로그램 <정령, 도적, 방울> 셋째날

‘나’와 ‘나’의 관계

참여: 강지윤, 김미정, 봄로야, 임나래

일시: 2018년 10월 27일(토) 15:00-17:00

봄로야는 일상과 환상, 기억과 현재의 물성과 현장들을 그림과 노래, 책과 전시의 형태로 엮어 왔다. 주요 개인전으로 <답 없는 공간: 근사한 악몽>(탈영역 우정국, 2016), <사라의 짐>(스페이스 알떼에고, 2014), <0페이지: 움직이는 책>(서교예술실험센터, 2012), <눈물이 내리는 노래>(프린지 클럽, 홍콩, 2009) 등이 있다. 여성을 둘러싼 반복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시각적으로 발언하는 노뉴워크의 일원으로 <A Research on Feminist Art Now>(스페이스원, 2017), <불편한 고리들: 폭력의 예감>(알떼에고, 2016)를 함께 만들었다. 인디 문화씬 내 작업과 기획을 시작으로 프레파라트 연구소, 갤러리 스케이프 큐레이터를 거쳐 최근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사유지의 멤버로 활동하며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임나래는 시각예술분야의 비영리기관에서 전시기획과 행정을 해왔다. 예술학과 미학을 공부하고, 기획, 교육, 글쓰기를 함께 하고 있다. 예술 안에서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 혹은 간극에 관심이 있다. <세계문자심포지아 2016: 행랑>(2016), <Becoming a Chair>(2018)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로, 경기문화재단 <별별예술프로젝트>(2015), <비평 페스티벌>(2015)에서 비평가로 참여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을 거쳐 현재 사유지의 멤버이자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지윤과 함께 <현재전시>를 만든다.

토크 프로그램 <정령, 도적, 방울> 셋째날